

2025
이단경계주간
자료집
(10.27~11.2)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목 차

믿음의 터를 든든히 하라 • 위원장 우광성 감독 ■	3
기도회 자료 1 (계시론&성경론) • 이영한 목사 ■	6
기도회 자료 2 (삼위일체론) • 최태관 목사 ■	8
기도회 자료 3 (인간론) • 서영석 목사 ■	10
기도회 자료 4 (기독론) • 안범모 목사 ■	12
기도회 자료 5 (구원론-이신칭의) • 김영내 목사 ■	14
기도회 자료 6 (교회론) • 한철희 목사 ■	16
기도회 자료 7 (종말론) • 김현식 목사 ■	18
이단경계주일 공동예배문 ■	20

믿음의 터를 든든히 하라

(골 1:22~23)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현지 시장을 방문해 보면 아직도 짝퉁 물건을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500달러 짜리 몽블랑 만년필은 약 10달러로 살 수 있고,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도 단돈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일반인들은 가짜인 것을 쉽게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짝퉁은 시계나 만년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명품엔 모두 짝퉁이 있습니다. 비싸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되기 때문인데 사실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고, 그런 점에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전달될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사용하여 거짓말을 하며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이 복음으로 가장 사악한 죄를 짓게 될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한번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될 현상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사 주님은 크게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첫 번째 징조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들이 많아 질 것이고 기근이나 지진 같은 재난들이 더욱 극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마 24:6-8)

또 하나의 중요한 징조는 이단들의 구체적인 해악에 대한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 24:5)

주목할 것은 일단 많은 이단들의 출현할 텐데 그들 모두가 자신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여 역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신 것인데 이단 연구 전문가로 활동하다 이단들에 의해 순교하신 탁명환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신을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자가 35명, 하나님, 보혜사, 성령 등으로 지칭하는 사람은 12명이나 된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의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JMS의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입니다.

-미혹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는 미혹을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혹은 ‘정신이 헛갈리어 분별을 못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님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혹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아래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독생자며 구원자이신 것이 너무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또 다른 구원자라고 죄뇌를 시켜서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외에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짝퉁이며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영생은 너무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영생을 진짜 얻으려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조건으로 추가하여 가르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미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스 피싱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상황을 너무 그럴 듯하게 조작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리숙한 사람들만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모두 미혹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혹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몇 월, 몇 시에 종말이 시작되니까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가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144,000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만들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천지에 와야만 144,000명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만희가 이긴 자이며 보혜사이고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라고 가짜 구원자를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없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성경에 보면 이미 초대교회 제자들의 시대에도 이단들이 벌써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이단이 벌써 생겨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단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계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 2:1)

이 말씀에 보면 이미 베드로 시대에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는 이단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고, 사도바울도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에게 이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딤후 3:10)

-믿음의 터를 튼튼히 하라.

오늘은 우리 감리교 교단에서 이단을 경계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굳게 지키는 이단경계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지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의 하나는 골로새서가 말해 주듯이 믿음의 근본인 믿음의 터를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골 1:23)

위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의 기초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십자가의 예수님만 증거하고 가르치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복음이라고 선포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으로 자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단들은 바로 이 부분을 부정하고 온갖 교리를 만들어서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미혹하여 양들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터, 즉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바울도 이 믿음의 터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엡 3:17)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도 오직 유일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뿌리가 되고 그 믿음의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구약성경에 소개되는 모든 선지자를 비롯해서 주님을 위해 순교한 12명의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만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씀인데, 모퉁이 돌이란 우리말로 하면 기초석이란 뜻이고 이 기초석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치는 말씀

터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면 즉 터가 흔들리면 아무리 오랜 기간 지켜온 건물이라고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다르다. 진리의 터를 굳건히 하는 한 아무리 미혹하는 영이 역사해도 성도들은 진리가운데 우뚝 설 것이며 교회들은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깨어 있는 기도와 함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면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고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2일
이단대책위원장 우광성 감독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첫째 날(2025.10.27. 월요일)

성경이 기준입니다(계시론&성경론)

-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 성경: 딤후 3:15
- 침조: 감리회 신앙고백 4조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가 피터빌러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 인물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웨슬리 자신은 그 주장에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1748년에 출판된 첫 번째 설교집의 서문에서 “나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목적을 “하늘로 가는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선한 청지기’에서 자신이 성경에서 배운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확신하기 어려우며, 자신의 구원을 기꺼이 성경에 근거시킨다는 것만을 확실히 안다고 말합니다. 감리교 종교강령 제5조 ‘성경이 구원에 족함’의 항목에서는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였으므로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로 증명하지 못할 것은 아무 사람에게든지 신앙의 조건으로 믿으라고 하거나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으로 여기라고 못할 것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구원, 즉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성경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997년 제정된 ‘감리회 신앙고백’에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표준”이라는 표현은 “유일한 표준”이라는 말로 대치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감리교 신앙고백을 명확히 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을 분별함에 있어서 감리교의 헌법과 같은 교리와 장정이 이단을 허용할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리와 장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을 위한 지침’에서는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 복음이 한국 문화에 뿌리내려 열매맺게 하는 신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경이 기독교 교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요 표준임을 믿는다면서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성경은 최우선적이며, 전통, 체험, 이성, 토착문화는 성경연구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학의 과제는 성경본문의 독자적 반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하는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을 유일한 원천이요 표준이라는 말과 상당한 의미의 차이를 허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시대와 민족, 문화, 지리 등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토착문화와 감리교와의 접목이 진정한 한국적인 감리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언제나 오늘날 영원히 불변하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아우틀러의 사변형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다가 더하여 기독교와 토착문화와의 접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웨슬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며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전통과 경험과 이성도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은 사람들이 회의를 통하여 만들고 잉크로 써놓은 것으로서 제한된 시기와 장소

에서는 타당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시대에 타당한 것이 아니므로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체험, 경험은 당연히 신앙의 기준이 되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의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체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역사한다. 현실이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체험입니다. 교리와 장정에서는 비판적 이성을 가지고 기독교교리의 일관성과 명료성을 획득해야 한다면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리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설득력있는 내용으로 교리를 수정해야 한다는 말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웨슬리에게 자연적 이성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선된 이성이라 할지라도 불가시적이며 영원한 세계에 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육과 혈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에 관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해력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한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즉, 타고난 이해력, 이성으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야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진리를 이성을 사용하여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 한 줄 기도

주님, 웨슬리가 고백하였듯이 우리 모두가 한 책의 사람, 곧 성경의 사람 되기를 구합니다. 성경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내게 역사하여 현실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한 목사 (충북연회 선민교회, 이단대책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둘째 날(2025.10.28. 화요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삼위일체론)

- 찬송: 84장 온 세상이 감감하여서
- 성경: 마 28:16~20
- 침조: 감리회 신앙고백 1조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진리입니다. 이는 성자,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 18-20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륜적 삼위일체의 분명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경륜”이란 뜻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이시라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달리 창조 세계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방식을 뜻합니다.

첫째, 본문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 계시는 예수님이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선교의 지상명령입니다. 그 지상명령에 따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서방교회에서는 터툴리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의 본질과 세 가지 위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후 교회는 이단과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을 확립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은 로고스 기독교론에 반동으로 나타난 역동적 군주신론과 양태론적 군주신론입니다. 역동적 군주신론은 예수를 신의 영이 내려와 메시아의 영을 받은 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에비온주의와 양자론이 속합니다. 양태론적 그리스도론은 사벨리우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의 본질을 나타내며 세 가지 위격은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립적 위격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단에 대처하여 올바른 교리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둘째,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통교리를 세워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단 논쟁은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325년 니케아공의회에서 교회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와의 논쟁에서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의 동일본질이라는 아타나시우스의 교리를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양자라고 주장한 아리우스를 정죄했습니다. 다음은 니케아 신조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본질에서 낳은 외아들, 하나님의 하나님, 빛의 빛,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 낳아지고 만들어지지 않은 아버지와 동질인 분을 믿습니다.” 그 후 카파도키아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아들과 성령이 동일한 아버지의 심연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이 셋은 모두 같은 의지, 같은 우시아, 같은 피지스를 가지고 있고 셋은 각각 고

유의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삼위일체의 현실성을 상호내주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후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을 이해하고 삼신론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 위격을 “독립적인 존재의 힘 또는 독립적인 페르조나”로 이해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니케아 신조에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실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문장을 덧붙입니다. 이와 같은 논쟁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찾으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논쟁은 계속되었으나, 교회는 “참하나님이요 참인간”이라는 교리를 세우게 됩니다.

셋째, 본문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가 종말에 이르기까지 합심하여 지켜야 하는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고 지키는 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자신을 재림 주, 독생녀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곳곳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거짓을 진리로 만들어 속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거스틴이 고백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마치 거짓이 진실인 양 부풀려지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세계 안으로 낮아지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하나의 인간이나 격상된 존재로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참 하나님이요 참 아들이라는 고백의 언어보다는 인간의 방식으로 그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내적 비밀인 삼위일체에 다가가려 할 때, 티리히가 주장하듯이,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임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과 삶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기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사랑하며 성령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사랑으로 구원하게 하옵소서.

최태관 교수 (감리교신학대학 교수, 이단대책위원)

함께 하시는 성령(인간론)

-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 성경: 롬 1:18-25
- 침조: 감리회 신앙고백 7조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 있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부성적 관심과 사랑의 특별한 대상입니다. 웨슬리는 인간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이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은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거룩하고 무죄한 존재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이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 먹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정욕의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롬 1:18-25).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은 인간의 원죄가 되어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게 하였고,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사망에 거하는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선행은총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구원 사역에 복종하게 될 때 아담으로 인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거듭남과 성화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로 인한 죄책은 그리스도 대속의 무조건적인 공로로 값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상실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은 인간이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거나, 교주가 신의 육신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또한 이단은 인간이 가진 능력을 극단적으로 과장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교만을 조장합니다. 이로써 신도들이 교주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신비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 한 줄 기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시며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음을 확신하며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영석 교수 (협성대학교 교수, 이단대책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넷째 날(2025.10.30. 목요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기독론)

-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성경: 마 16:13-16
- 침조: 감리회 신앙고백 6조

1.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

예수께서 3년에 걸친 공생애를 매듭지으려 예루살렘을 향한 고난의 대장정을 시작하시며 빌립보 가이사랴를 통과하시게 된다. 이곳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신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다. 이 도시를 배경 삼아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빈들 광야에서 던져진 질문이 아니었다. 황제의 도시, 황제의 신전이 자리한 빌립보 가이사랴를 배경으로 던져진 질문이다. 바로 이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탄생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에서 행해진 인간의 고백이 아니다.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하여 드러진 고백이었다. 베드로의 고백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로, 당신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주목하지 않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다.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이다. 둘째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나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이다. 이 놀라운 신앙고백이 가장 원초적인 기독론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기독론(Doctrine of Christ, Christology) 논쟁

기독교 조직신학의 한 영역인 기독론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라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기독론은 기독교 신앙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기독론은 신학 체계의 가장 기본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기독론의 역사는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시작해 이단들과 논쟁하며 발전해 왔는데, 이는 예수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증가하면서 교회가 정통 기독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 대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초기 기독교회는 에비온파(Ebionites /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 영지주의(성육신 부정)가현설(Docetism /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성을 부인), 사벨리안(Sabellians / 성부의 한 형태가 나타난 분이 그리스도라 주장), 아리우스파 등의 이단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여왔다. 그중 아리우스파(Arianism)는 그리스도를 창조된 피조물로 보며, 로고스의 본질은 피조적인 것으로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반신반인(半神半人)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때 초대교회 교부들은 로고스 기독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강조)는 것이다. 이는 주로 영지주의(Gnosticism)와 아리우스주의(Arianism)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니케아 공의회(321년)는 아리우스의 성자 종속론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아들의 신성, 즉 아버지와 동일 본질(homoousios 호모우시오스)을 결의하여 예수의 신성을 확증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이단 세력인 네스토리우스파와 유티게우스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네스토리우스파(Nestorianism)는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natures)인, 신성과 인성의 본질적인 특성은 영원부터 구별되었다고 한다. 신적 ‘말씀’이 인성과 한 인격체로 유기적 결합을 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 속에 거하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이심을 부정하는 것이요, 또 참된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티게우스주의(Eutychianism)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혼합된 제3의 본질 혹은 성(性)이 되셨으며, 이때 인성이 신성에 압도되지만 동시에 신성도 이전과 같지 않다고 보는 ‘일성설’(一性說, monophysitism)을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구별을 부정하며, 신성과 인성의 혼합으로 보았다. 이에 교회는 칼케돈 공의회(451년)를 통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duae naturae, una persona)을 강조하는, 예수의 양성(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대한 정통교리를 확립한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그는 두 가지 성질(nature)로 인식되는 바, 혼돈 없이(without confusion), 변화 없이(without change), 구분 없이(without division), 분리 없이(without separation) 계신 분"이다. - 칼케돈 신조

앞의 두 개의 단어는 Eutychianism에 반대하며, 뒤에 두 개는 Nestorianism에 반대한다. 이 칼케돈 신조는 ‘기독론 발전의 정점’이며 여기서 기독론의 중심교리가 결정된 것이다.

3. 도전받는 교회와 신앙고백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의 교회와 신앙은 여러 이단의 도전 속에서도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경적 기독론에 반하는 이단 세력들이 오늘도 도처에 널려 있다. 대다수 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 안의 두 본성(신성, 인성)을 약화시키거나 부정하며 도전하고 있다.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올바른 기독론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요일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늘도 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교회와 신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빌립보 가이사라의 베드로의 고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 한 줄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법모 목사 (서울연회 고백교회, 이단대책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다섯째 날(2025.10.31. 금요일)

믿음으로 받는 구원(구원론, 이신칭의)

-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 성경: 롬 10:9-10
- 침조: 감리회 신앙고백 5조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리신 결정은 참으로 충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던 십자가 사형을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방법이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이신칭의(以信稱義)’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도록 하셨을까요?

첫째,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여 어떤 사람은 성자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악인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편에서의 평가일 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들을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둘째, 사람의 방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 다신교적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 우상들을 섬겼고, 탈무드에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도 소개됩니다. 당시 우르 사람들은 달신 난나 등 여러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런 다신교적 환경을 떠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약속의 땅으로 향한 것은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재적인 은혜로 택하여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4) 많은 불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로써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에 그의 가치관대로라면 모두가 다 멸망당할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행 2:21) 오늘 수많은 이단들이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 한 줄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내 목사 (중앙연회 예수공동체교회, 이단대책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여섯째 날(2025.11.1. 토요일)

거짓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교회론)

-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성경: 요일 4:1-21
- 침조: 감리회 신앙고백 6조

사도 요한이 요한1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당시 교회를 크게 위협하고 있던 이단세력인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진리의 터 위에 굳세게 세우기 위함이었다. 외면적으로는 기독교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적 이단의 거짓에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 빠져 있었고 교회는 큰 혼란 가운데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그런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그들의 거짓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해결의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본문 말씀은 바로 요한1서의 핵심장으로 바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곳이다. 먼저 1-6절에서는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들, 곧 1)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시인하느냐의 여부 2)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가의 여부 3)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7-21절에서는 이러한 이단들의 거짓과 미혹의 역사를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이 사랑함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지켜주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결국 진리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직면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이단의 거짓과 미혹의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돌파하고 이겨내어 오늘 우리들에게 까지 신앙을 물려준 것이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수많은 이단들에게 많은 이들을 빼앗겨버린 한국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은 자신들이 포섭한 이들을 주로 점 조직으로 조직하여 이탈하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 신도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도록 해서 주로 카톡을 사용하는 가족들에게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런 이단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에 있다고 지속적인 세뇌를 시키고 그 안에서도 특별한 숫자 안에 들어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예, 신천지의 14만4천 교리) 속이면서 추종자들 사이에 경쟁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도 혹시나 이탈하는 이들이 생기면 그들에 대해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테러를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단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거짓된 악한 마귀 역사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족이나 함께 신앙 생활하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런 사악한 이단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서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룩한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런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 서로를 악한 마귀의 미혹의 역사로부터 지켜 낼 수 있는 것이다. 각종 질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완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로 어떻게 하다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려는 형제자매를 초기에 발견하여 건져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성도들 간에 서로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룩한 일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한 줄 기도

주님, 현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의 기세는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더욱 믿음의 형제자매들 간에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김으로 거짓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철희 목사 (충청연회 서천제일교회, 이단대책위원)

믿는 자의 소망(종말론)

- 찬송: 528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 성경: 마 25:34
- 침조: 감리회 신앙고백 3조

종말이라는 말은 얼핏 세상의 끝자락,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으로 다가오는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계사에 있어 암울했던 시기, 곧 전쟁이나 기근 혹은 국가의 국운이 다했으나 싶을 정도의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때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내미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그릇된 종말론입니다. 마치 세상의 끝이 날것만 같은 사상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단체 안에 특정한 인물을 통하여 건짐 받을 수 있다는 미혹을 내세우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어수선한 틈을 타 미혹하는 이들에 대해 이미 말씀으로 경계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종말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말이 아닌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의 시작이 되면 믿는 이들은 환난을 만나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마24:4~9)¹⁾. 이 같은 거짓된 종말론에 있어 성경은 종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크게 보건데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론과 우주적인 종말론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 종말론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각 개인의 생물학적 죽음과 그 죽음 이후 영혼의 존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히9:27)²⁾. 죽음의 순간 몸을 떠난 영혼이 존재하게 되는 곳을 신약에서는 하데스(hades; ᾗδης)라는 곳으로 언급되는데 이 영역은 낙원(paradise, 눅23:43)³⁾과 지옥(hell, 눅16:23)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와 함께 하데스의 한 영역, 곧 지옥에 있는 모든 영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마25:41)⁵⁾에 던져질 때까지 울부짖으며 계속 있게 될 곳입니다. 다른 한편인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이들, 곧 이 세상의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의 영혼이 ‘창세로부터 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행복함에 계

1) 마 24:4-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⁵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⁶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⁷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⁸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⁹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2)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3) 눅 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 눅 16:23.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5) 마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속 있게 될 곳으로 모든 인생에게 일어날 종말입니다.

둘째는 우주적 종말론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행24:15)⁶⁾,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이어 현재의 물질세상의 폐지와 동시에 비물질로 새로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과 영벌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날과 그 때를 하나님 아버지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다하셨는데(마24:36)⁷⁾ 다음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땅은 무섭게 흔들리고(사2:19)⁸⁾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있어(살전4:16)⁹⁾ 수만의 그의 성도들(유1:14)¹⁰⁾과 천만천사(히12:22)¹¹⁾와 함께 오셔서 택한 자들을 모으시므로(마24:31)¹²⁾ 땅의 먼지 속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며(단12:2)¹³⁾ 바다 또한 그 속에 들어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계20:13)¹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입니다(고전15:53)¹⁵⁾. 부활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일어나(행24:15)¹⁶⁾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좌우편으로 놓으실 것입니다(마25:31~33)¹⁷⁾.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후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마25:46)¹⁸⁾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는 자의 종말은 이처럼 소망 속에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한 줄 기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주신 주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김현식 목사 (남부연회 샘물교회, 이단대책위원)

-
- 6) 행 24:15. 그들이 기다리느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 7) 마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 8) 사 2:19.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 9)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 10) 유 1:14.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 11) 히 12: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 12) 마 24: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 13) 단 12: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 14)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 15) 고전 15: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 16) 행 24:15. 그들이 기다리느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 17) 마 25:31-33.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³²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³³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 18) 마 25: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 11월 1주일 이단경계주일 공동예배문 ■

집례자 : 교역자

[하나님께로 모임]

- 전 주 반주자
 * 입례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4-6)

온 우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의 성소로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경배찬송 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다함께
 * 말씀교독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앙고백 다함께
 * 삼위영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오늘의 기도..... 장로/권사 중에서
 주님의 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다함께

[말씀과 결단]

- 성경봉독 권사/집사
 찬 양 찬양대
 설교자 :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 141:3)
 회 중 :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
 설 교 설교자
 합심기도 집례자

1. 감리교회 교인이 영적으로 깨어 이단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2. 이단에서 개종한 이들과 이단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3.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과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감사와 응답]

봉헌찬송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다함께
봉헌기도		말은이
평화의 인사		다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으로의 파송]

교회소식		집례자
* 찬 송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다함께
* 파송의 말씀		다함께
집례자 : 십자가 군병 되어서 수많은 원수들의 유혹과 미혹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회 중 :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 축 도		목 사
후 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